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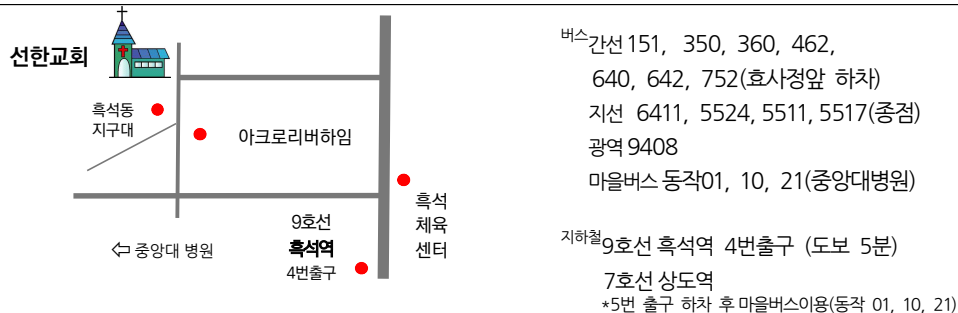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 교 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웅,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마태복음 13장 54절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0장 (통일찬송가 40장)
교 독 문		교독문 47 (시편 105편)
찬 양 과 경 배		122장
합 심 기 도		다함께
찬	양	여성독창: 오 거룩한 밤 (O Holy Night) 신영문 집사 / 반주 정주영 형제 영상: 이 아기는 누구인가 (What Child Is This) 남성독창: 거룩한 성 (Holy City) 이하은 형제
말 씬 봉 독		마태복음 13장 51~58절
설	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요배
여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자기 행위에 대한 보응 (잠11:16-31)

교회소식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예배에도 복장과 자세를 단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배 안내
 1. 주일예배: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1시 예배 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는 말씀자료 제공 / 금요기도회는 영상 제공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2차): 6개월동안 일독하시면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금주 범위: 렘8장~렘52장]
 4.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3. 코로나 19 기도제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4. 성탄행사안내
 1. 24일(목) 성탄전야 찬양제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오후 8시)
 2. 25일(금) 성탄축하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오전 11시)
 3. 25일(금) 금요기도회는 가정별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를 위해 이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크리스마스를 맞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수 있기를
복음을 선포함으로 예수님께 생일 선물을 드릴수 있기를

가정예배	가장 소중한 만남
찬송 :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통 360)	
본문 :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 많은 인생과 상처투성이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삶이 변화되고 치료되고 회복 됩니다. 모세는 인생의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고 생각되는 80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는 모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됐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가시 떨기나무에 임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모세는 애굽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자의 신분에서 순식간에 살인자,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산 삶은 혹독한 인생의 현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마무리 해야 할 나이인 80세가 됐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의 삶은 떨기나무 같은 삶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린 미움과 분노의 가시, 원망과 불평의 가시를 갖고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적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쓸모 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주님이 만나주셔서 그 날카로운 가시를 꺾어 버리시고 기쁨과 평안함, 자유로움과 위로, 영원한 삶을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장면을 목격합니다.(2절)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 삶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우리 삶도 떨기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이 임하기만 하면 그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생깁니다. 미움과 원망의 가시가 성령의 불꽃으로 다 타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축복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4절)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축복과 성공, 은혜로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나와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출애굽의 멋진 사명을 감당케 하신 모세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마13:51-58)
서론	천국의 가치를 알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론	1. 천국 비유의 결론 (1)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51절) (2) 깨달은 사람의 반응 :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52절) [의미] ①‘제자된 서기관’(충성된 종들(마24:45)) ②‘새것과 옛것’(구약과 신약) ③‘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하늘의 모든 신령한 보화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3) 깨달지 못한 사람의 반응 : [배척]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55절) 2. 교훈 (1) 천국의 가치를 깨달았는가? (2) 천국의 가치를 소유하였는가? (3) 천국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가?
결론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소유하고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Q.T.		그리스도의 종	날짜 : 12월 21일
찬양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본문	베드로전서 5:1-7		
	베드로는 자신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래 전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할 때의 천사들의 증언처럼(참조, 행1:11) 예수님께서서는 영광 중에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임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는 당연히 그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기를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본이 됨으로 목양을 해야 할 이유는 먼저 그들에게 양 무리를 맡기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심으로 교훈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과의 공생애 기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대한 본을 보여 주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극치를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장으로서 자기 양 무리를 목회자들에게 맡기신 것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양 무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차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시어 자신의 목장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재림하실 때 심판 주로 오셔서 자신의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염소들을 지옥불에 던지실 것입니다(참조, 마25:31-46). 또한 양들을 맡기었던 목자들에 대해서도 주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준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셔서 주님의 양들을 맡아 신실하게 목양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이들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묵상질문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개인성경공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찬양과 기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새 425)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헬렌 켈러는 자신의 눈이 보이게 된다면 가장 먼저 앤 설리번 선생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팽배했지만 20세의 설리번은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고 헬렌 켈러를 헌신과 노력으로 가르칩니다. 헬렌 집안이 기울어져 월급을 받지 못할 때는 스스로 후원자를 모집해 헬렌을 가르쳤고,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헬렌이 하는 모든 공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하버드대학교의 부설 여자대학까지 진학시킵니다. 헬렌이 장애를 이겨 내고 세상의 차별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앤 설리번 선생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앤 설리번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어머니와 남동생은 결핵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녀도 5살 때 병에 걸려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이때의 충격으로 설리번은 이상 행동으로 결국 정신 병원에 갇힙니다. 그때 '로라'라는 간호사가 매일 찾아와 설리번에게 말을 건네고 책을 읽어 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로라에게 마음을 연 설리번은 이후 건강을 되찾았고,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해 최우등생으로 졸업합니다. 설리번은 어느 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신문 광고를 보고 로라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아이가 헬렌 켈러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있던 내 삶을 이끌어 빛으로 인도해 준 만남이 있나요?	
말씀 나누기	누가복음 1:39~56	
묵상포인트	하나님은 메시아 수태 고지를 들은 마리아를 위해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처녀로서 잉태했기에 불안감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칫 부정하다고 낙인 찍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런 마리아와 태중의 아기를 축복합니다. 이후 마리아는 마음의 자유를 얻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합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와 위로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각자 말씀 위에 확고히 서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과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어떻게 맞이했나요?(41~45절)	
적용하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로 회복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으로 불안과 염려를 물리치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예수의 탄생	날짜 : 12월 25일
찬양	찬송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본문	누가복음 2:1-14		
	메시아의 탄생이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가 구원할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으며 죄의 종이 되어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이기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초라한 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차매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며 다윗의 동네에 이르러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성취시키셨으며 언약의 완성을 위한 가시적 실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그가 곧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양을 치며 자신의 일에 충실하던 그들에게 인류의 구원을 알리는 복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자신의 양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목자들에게 선행 목자 되시는 예수의 오심을 알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절망은 없습니다. 죄 아래서 신음하던 과거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희망과 즐거움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이 울려 퍼져야 하며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흘러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탄생은 그를 싫어하는 악한 무리들의 시기로 인해서 백성들 가운데 적은 무리에 의해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시는 일이 작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크신 일이기 때문에 악한 인간들의 반응과는 상관이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경배는 마리아에게 새로운 용기와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경배는 결코 몇몇 적은 무리의 초라한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메시아를 발견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들의 위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묵상질문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고 있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	날짜 : 12월 22일
찬양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본문	베드로전서 5:8-14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염려가 인간의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거리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망의 문제와 모든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까지 주님께서서는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가 세상의 일로 염려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배반이요,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음을 잠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잠간의 고난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굳게 하며 강하게 하여 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이 굳건하게 됩니다. 사단은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고난과 시련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굳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 근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신앙의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굳게 한다는 말은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운다는 뜻으로, 어떠한 세찬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기초가 든든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한다는 말은 원기가 왕성케 한다는 뜻으로, 사단의 꾀계와 싸워 이기는 힘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고 굳세게 하심으로 믿음의 터에 굳건히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묵상질문	내가 극복한 것중 가장 어려운 고난은 무엇이었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기쁨과 찬송의 충만	날짜 : 12월 23일
찬양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본문	누가복음 1:26-38		
	믿음의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복중에 요한을 가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면서 오실 메시야에 대한 기다림과 기쁨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선택된 사람이 보여 주는 신앙의 모범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으며 마리아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사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본 마리아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은혜로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에서 악한 자들을 돌보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을 찬송하였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진정한 찬송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들을 넘어서서 공의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메시야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온전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묵상질문	크리스마스에 당연히 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침례 요한의 출생	날짜 : 12월 24일
찬양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본문	누가복음 1:39-56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은 후에 그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가라는 아직 병어리로 있었기 때문에 서판을 이용해서 요한이라 표현하였습니다. 그 후 사가라의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일이 유대에 퍼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탄생에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할일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밝히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가라는 구원의 사역에 대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가라는 요한을 가리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루시는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알리고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사가라로 하여금 암울한 상황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하였으며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죽어야 할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며 멸망을 당해야 할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원의 길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 사가라는 진정한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묵상질문	주님이 주신 것 중 어떤 것을 나는 가장 기뻐하나요?		
오늘의 기도			